

일산동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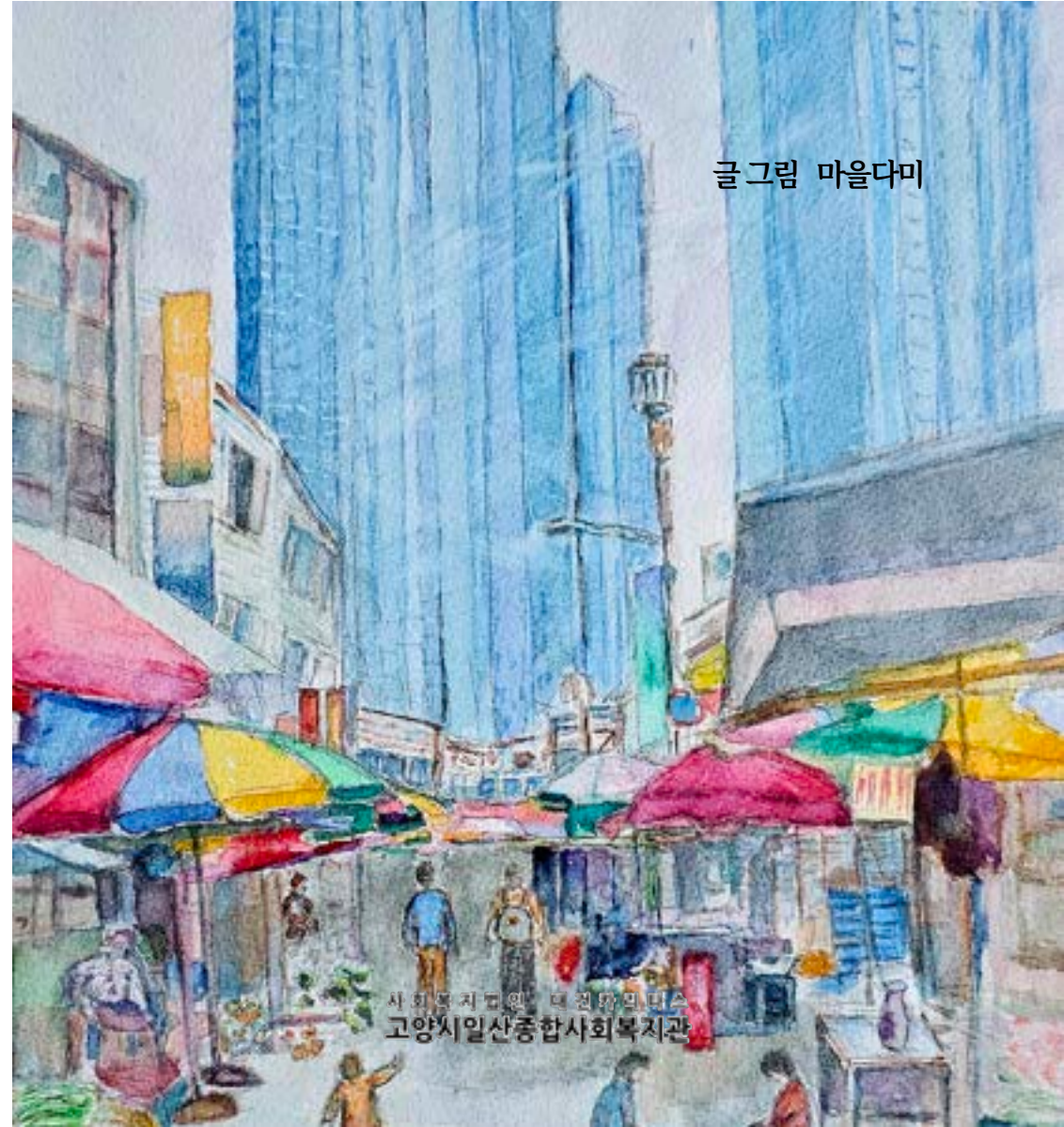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의 이야기

글그림 마을다미

일산동 아카이브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의 이야기

※ 이 책자는 **emart** 품산점 에서 지원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회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일산동 아카이브

일산동 아카이브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의 이야기

일산동 아카이브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의 이야기

펴 낸 날 2023년 12월 11일
지 은 이 마을다미(박혜인, 배지영, 손태원, 이미선, 이수민)
펴 낸 이 최찬영(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후 원 이마트 풍산점
표지삽화 손태원
감 수 이상미
편 집 조안나
펴 낸 곳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전 화 031-975-3322
홈페이지 www.ilsanwelfare.or.kr
출판번호 일산중복-2023-003

글 그림 마을다미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23

※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네이버 나눔손글씨 대한민국열사체·나눔손글씨 철필글씨·마루부리 글꼴, CJE&M 즐거운 이야기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 회 복 지 법 인 대 건 카 리 타 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차례

들어가는 말- 4

1부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

마을을 환하게 만들어 주는 “란언니 디저트” - 14

일산동의 시간이 담긴 “삼양슈퍼” - 36

머리카락과 함께 세월이 깎이는 “월드 이발관” - 58

65살된 옷 가게는 나의 모든 것 “복근상회”- 78

2부 점점 열리는 일산동

일산동 마을지도 - 108

열어지는 일산동 - 110

나가는 말- 128

들어가는 말

점점 열리는 일산동과 마을을 담아내는 이들

매일매일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상의 기록을 남기기란 쉽지 않다. SNS가 발달하며, 특별한 일상이 아닌 사소한 일상의 기록은 더 뒷전이 되었다. 때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스티커, 집 집마다 연결된 전깃줄, 녹이 슬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문고리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일상은 기록의 거리로 대개 여겨지지 않는다. 흘려보내는 하루이고, 잠시 머무르는 골목일 뿐이다.

그렇게 별거 아니라 여기며 지나간 일상이 바뀌고 없어졌을 때 문득 깨닫는다. ‘예전엔 어땠지?’ 라며 회상할 때 추억은 이미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에서 멀어지는 일상은 누군가에겐 가치 없다고 치부되기도 한다. ‘그 골목은 저녁에 지나갈 때 좀 무서웠잖아. 차라리 없어진 게 나야.’, ‘살기 좋아지면 된 거야.’라며 사라진 것보다 새롭게 생겨난 것에 의미를 두면서 말이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멀어지는 일상이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한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누웠던 골목, 자녀가 어릴 때 고무줄을 걸었던 전봇대, 매일 같이 오갔던 거리가 사라짐을 문득 느끼며, 떠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해석하기 위해 일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마을 기록가 모임 ‘마을다미’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매일 같이 지나치던 골목길 상점에 ‘이주 완료’ 스티커가 붙었을 때, 서울을 나갈 때 열차를 기다렸던 일산역사가 ‘일산역 전시관’이 되었을 때,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던 길이 없어지고 아스팔트가 깔렸을 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우리 마을 모습에 화들짝 놀라 지금의 일산이라도 남겨보고자 마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을다미가 기록한 일산동은 경의선 일산역, 일산시장과 함께 변화되었다. 경의선 철도가 놓인 1908년 당시 일산역은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의 첫 정착지였다. 기차를 타고 사람과 물건이 일산시장에 모였다. 사람과 물건이 모여든 일산동은 일산역 건립과 함께 고양시의 중심이 되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1980년대에는 ‘일산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일산동 곳곳 펼쳐진 논이 흙으로 메워진 후 빌라와 저층 주택지가 생겨났다. 1989년 경의선 철도를 기준으로 남쪽 부지가 일산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네모반듯하게 구획이 나뉘어 개발된 일산역 남쪽과 달리, 신도시 개발 구역이 아니었던 일산동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각기 개발되어 복잡한 구도심의 모습을 띄며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몇 십 년 동안 변하지 않던 일산동에서 지역 재개발이 논의되었다. 2015년 일산 1구역(일산역 2번 출구 인근)·3구역(미주 6차 아파트 인근), 2020년 일산 2구역(일산시장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구역별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산 1구역 개발이 시작되던 2018년이 돼서야 마을이 변화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이미 개발이 결정된 뒤에나 마을의 변화를 느꼈다. 국물이 맛있었던

만두 전골 식당 문에 ‘이주 완료’ 노란 스티커가 붙었다. 며칠 후엔 자전거 가게에 스티커가 붙었다. 그렇게 한 가게, 한 가게 스티커가 붙더니 금방 온 골목에 노란 스티커가 붙었다. 몇 개월이 흘렀을까. 굉음과 함께 건물들이 무너졌다. 몇 십 년간 수많은 주민들이 거닐던 골목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붕괴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현재의 일상을 담아 내야 할 것 같았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2021년에 마을 기록가 모임 ‘마을다미’가 만들어졌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계획보다 활동이 늦어졌다. 물리적 거리를 뒤흔치는 2020년을 흘려보내고, 2021년 겨우 활동을 시작했다. 늦었기에 마음은 더 급했다.



221223_일산동 마을이야기 사진전시회_조안나

급한 마음은 마을다미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라져가는 일산동의 모습을 목적 없이 기록했다. 어디 제출할 것도, 개인 사진전을 개최할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책임감에 기록했다고 한다. “일산역 앞에 아파트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철거할 때부터 짓는 것까지요. 왠지 찍어뒀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놀았던 벽화골목 사진을 찍어두고 있어요. 추억할 수 있게요.”라며 저마다 혼자 마을을 기록한 것을 공유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동기로 모였지만, 마을 기록이 필요함은 함께 느꼈다.

마을 기록을 시작한 첫 해, 현재의 일산동을 기록하기로 했다. 각기 자신의 시각에서 느끼는 현재의 일산동의 모습을 담아 책자로 만들기로 했다.



211223_2021년 일산동 아카이브 책자출판 기념회_조안나



220310_일산동 벽화마을 기록 활동_조안나

약 5개월간 일산동 곳곳을 다니며 사진 촬영, 인터뷰를 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우리 마을 간판과 선전물’, ‘우리 마을 전통시장(부제: 삶의 도구)’, ‘우리 마을 둘러보기’, ‘우리 마을 옛날 국수(부제: 장인의 손 맛)’, ‘우리 마을 현재와 변화’, ‘2021년 코로나 일상’을 주제로 120페이지의 책자를 만들었다.

마을을 기록하기 위해 일산동 곳곳을 둘러보니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들이 더욱 많이 보였다. 일산동이 간직한 옛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진 현재의 일산동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다.

매 주 걷던 거리였지만, 촘촘히 보니 마을이 또 달리 보였다. 으레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다시 시야를 열고 보니 새롭게 보였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되돌아 보니 걸을 때마다 마을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느낌이었다. 처음엔 신도시에서 보기 힘들지만 일산동에는 흔한 전봇대가 눈에 들어왔다. 전봇대를 연결하는 전깃줄들을 따라 길을 걸으니 벽화마을 속 주택에서 옛 건축양식과 이웃의 삶의 지혜가 보였다. 일산동 곳곳에 남겨진 옛 건축 양식을 따라 걸음을 옮기니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곡물 창고가 눈에 띄었다. 그렇게 마을기록가의 시선을 담아 2022년에는 일산동의 현재를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 지금의 일산동 모습을 주민의 시선으로 담아 내었다. 전시회를 통해 많은 이웃들과 일산동 현재의 모습을 공유했다. 기억할 새 없이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우리 일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마을 곳곳을 기록하다 보니, 사람이 보였다. 일산동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이 보였다.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웃의 삶을 담아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담아 2023년에 마을 다미는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이라는 주제로 마을 기록 작업을 하였다.

낮선 이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이가 몇이나 될까. 어떤 마을다미 회원은 인터뷰 대상 섭외를 위해 1년 전부터 사장님과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았다. 오며 가며 가게에 들러 인사를 나누고, 오늘은 어떤 옷이 들어왔는지 물어보며 말문을 트기도 했다. 또 어떤 마을다미 회원은 낮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면을 익히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이 책이 만들어졌다.

고양시에서 가장 발달된 도심이었던 1970년 당시에 일산동에서 처음을 시작한 부부, 몇 십년 간 한 자리에서 삶을 유지한 어르신, 지금의 일산동에서 처음을 시작한 자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몇 십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후 짙게 씌어낸 인생사는 길었던 이들의 삶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을다미를 믿고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 란언니 디저트 최유미 · 최유란 자매 사장님, 삼양슈퍼 이병진 · 이영숙 부부 사장님, 월드이발관 김동현 사장님, 복근상회 김복례 · 정근선 모자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시간, 날씨가 허락할 때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현재의 일산동을 기록으로 남겨준 우리 마을다미 박혜인 · 배지영 · 손태원 · 이미선 · 이수민 회원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마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과 이웃의 삶에 공감하는 마음, 쉽 없이 마을로 내딛는 발 덕분에 열려지고 있는 지금의 일산동이 선명해질 수 있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조안나



부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 1

마을을 환하게 만들어 주는 "란언니 디저트"

일산시장을 구경하고 일산 성당으로 걸어간다.
동문아파트를 지나 탄현 미주아파트 옆 상가에서 만났다.
란언니 디저트.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 간판이 예쁘다.
빨간 타일이 붙어있는 진열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진열대 안에 에그타르트, 휘낭시에, 치즈케이크, 수제 구움 과자가 맛있어 보인다.
옆 냉장고에는 밀크티, 커피, 딸기우유가 네모난 병에 담겨있다.
사장님 두 분이 환한 미소로 맞아 주신다.
맛을 기대하며 마음을 끄는 과자를 골라 계산을 마친다.
가게를 나서 다시 돌아본다. 란언니 디저트.
오래된 마을을 환하게 만들어 주는 예쁜 가게가 반갑다.



230823_란언니 디저트 전경 그림_박보은

일산동 토박이 자매의 카페 이야기

- ◆ 상 호: 란언니 디저트
-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92번길 60 이화프라자 1층 114호
- ◆ 영 업 시 간: 수요일~일요일 11시 30분~19시 (월요일, 화요일 정기휴무)
- ◆ 연 락 처: 070-5055-5145
- ◆ 구 술 자: 최유미(1984년), 최유란(1986년)
- ◆ 면 담 자: 마을다미 박혜인
- ◆ 인터뷰 기간: 2023년 6월 22일 ~ 2023년 10월 18일

나는 일산동에 살고 있지 않아 어떤 곳을 인터뷰 해야 할지 걱정이었다. 여러모로 정보가 부족하여 지인에게 상점을 소개받았다. ‘일산동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카페’가 내가 찾는 상점이었다. 그 시작을 인터뷰하고 싶었다. 지인에게 상점을 소개받아 어렵게 인터뷰를 약속했던 카페는 한 달 후 찾아가 보니 무인카페로 변해있었다. 이렇게 빨리 변해버리다니 당황스러웠다. 다시 일산시장 근처를 돌아다녀 보았다. 일산시장 근처만 맴돌았더니 더 이상 내 기준에 부합하는 상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근처 아파트 단지에 새롭게 오픈한 카페를 찾아 방문했다. 이전 카페 사장님께 인터뷰 부탁드렸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조금 더 쉽게 용기를 내어 부탁을 드릴 수 있었다.



230622_란언니 디저트 전경 사진_박혜인

‘란언니 디저트’는 최유란, 최유미 자매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였다. 오픈한 지 한 달 된 카페라고 한다. 동생인 최유란 사장님이 직접 구운 휘낭시에, 에그타르트, 쿠키 등의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박혜인: 일산동에서 카페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3대째 일산동에 살고 있는 일산동 토박이여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최유미)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 집에서 서울로 출퇴근 했었어요. 서울은 맛있는 디저트 파는 곳이 많잖아요. 서울에 자주 나가다 보니, 디저트 맛집을 발견하면 포장해 와서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때 일산동에는 이런 구움 과자 디저트를 파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저트 가게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침 그 당시 직장 생활을 하던 동생이 취미로 베이커리를 했었거든요. 그냥 취미로 혼자 배우면서 만든 것을 가족들에게 맛 보여주고 그랬는데 맛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강력히 추천해서 구움 과자를 파는 카페를 열기로 했죠.

박혜인: 저도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저도 꿈을 꾸곤 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장님: (최유미) 우리도 용기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 아니면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긴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오히려 많은 에너지도 얻고 즐거워요.



230622_상점 내 진열장_박혜인

박혜인: 인테리어가 예뻐요. 특히 빨간 타일이 눈길을 끌어요.

사장님: (최유미) 인테리어는 우리 둘이 직접 했어요. 전문가 손길이 필요한 전기와 간판만 업체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 손으로 했죠. 빨간색을 포인트로 두고 깔끔하게 인테리어하고 싶었어요. 포인트인 빨간 타일은 타일 가게에 가서 골라서 우리가 직접 붙였어요. 타일을 붙이던 날은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했었죠. 가게 층고가 높아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유리창에 붙어 있던 시트지도 다 제거하고, 커튼도 직접 달았어요. 가구며 모든 기기를 직접 구하러 다니다보니 가게 인테리어 하는데 한 달 넘게 작업했어요. 그래서 더 애정이 가나 봐요.

밝게 웃으며 말하는 얼굴에서 가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박혜인: 가게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장님: (최유미) 인테리어 공사 중일 때 한 학생이 선물 꾸러미를 갖고 찾아왔어요. 그 학생이 동네에 이런 카페가 생기는 것이 너무 반갑다며 예쁘게 열어달라고 용원을 해주고 갔었어요. 본인이 수험생이라면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의 아지트가 될 만한 예쁜 카페가 생겨서 좋다고 했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때 응원해 주고 간 손님을 지금도 수소문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카페에 방문하지 않은 건지, 아님 본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건지...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다시 가게에 방문하면 꼭 선물을 주고 싶는데 찾지 못해 아주 아쉬워요.

박혜인: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사장님: 저희 가게 주변이 다 아파트여서 아파트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께서 자주 오세요. 과자를 사러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을 하다 가시죠. 감사하게도 젊은이들이 잘돼야 한다며 일부러 찾아오셔서 가게 매출을 올려 주시기도 해요. 다양한 연령대의 단골 손님들도 생겼는데 주기적으로 오셔서 구매해 주시죠.

할머니들께서는 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가게를 열고, 또 늦은 시간까지 마을을 환하게 밝히며 마을을 지켜주니 그 모습이 예뻐 보이는 것 같다.



230622_상점 내부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_박혜인



231018_6월에 비해 더 넓어진 진열장_박혜인

박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사장님: 특별히 힘든 점은 없어요. 굳이 어려운 게 있다면 아무래도 장사를 처음 하는 데다가, 직접 과자를 구워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물량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날 날씨와 휴일들을 고려해서 구울 과자의 양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감이 부족해서 양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구움 과자 같은 디저트는 여름이 비수기라 매출이 조금 줄었었어요. 이젠 가을이 오고 찬 바람이 부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엔 인터넷 판매도 시작해서 일산동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주문이 오고, 또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 더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 (좌) 231018_할로윈 데이 이벤트 데코_박혜인
(우) 231025_다양한 종류의 휘낭시에_최유미

열정적인 사장님들의 모습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거도 계속 발전해 나갈 카페의 모습이 눈 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

박혜인: 가족끼리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 서로 많이 싸운다던데, 그렇진 않으신가요?

사장님: (최유미) 아직은 일로 부딪힌 적은 없었어요. 둘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그런지 오히려 싸울 일이 없네요. 빵을 잘 만드는 동생은 베이커리를 담당하고, 저는 오롯이 판매를 담당하니 그런 것 같아요. 철저히 분업해서 운영하다 보니 오히려 서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할로윈 같은 이벤트 데이에 디저트와 데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신메뉴 나올 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상의하는데, 의견이 부딪치지 않아서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박혜인: 가게를 하시며 생긴 목표가 있나요?

사장님: (최유미) 계속 새로운 과자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요. 1개, 2개의 완성품을 만들려면 수십 번 만들어 봐야 해요. 과자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주변 주민분들께서 의외로 휘낭시에, 밀크티 같은 디저트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께 맛있는 과자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음료수 종류도 더 많이 늘려 보고 싶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2년 안에 우리 가게가 여기 일산동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 231025_가지런히 놓인 휘낭시에_최유미

박혜인: 일산동 토박이시면 마을에서의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사장님: 3대째 일산동에서 살다 보니 할아버지 때부터 3대 모두 일산초등
(최유미)

학교 동문이에요. 일산초등학교는 가을에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해요.
아버지 대에 만들어진 동문 체육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는 기수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아직 참여할 수 있는 기수가 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어요. 체육대회 때 주최측에서 경품을 많이 준비해서 선물
도 종종 받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박혜인: 직접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장님: 어쩌다 체육대회에 구경을 가더라도 친척에 지인분들까지 너무
(최유미)

많아 인사만 하기도 힘이 들 것 같아요. 아직은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체육대회 이야기를 들으니 온 동네의 잔치였던 초등학교 운동회의 추억이
떠올라 정겨웠다.

박혜인: 일산동이 사장님 어린 시절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사장님: 오랫동안 한곳에서 살아오니 마을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아쉬운
(최유미)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 중에 꼽자면 제가 졸업한 고양여자고등
학교가 이전한 것이 제일 아쉬워요. 제가 입학하기 전부터 학교가
이전한다는 말은 있었어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언제 이전하는지는
몰랐죠.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고 바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바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학교가 금새

없어질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이전하고선 우리 학교가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가 다니는 떡볶이집들이 마을 곳곳에 있었어요.
어디 골목에는 무슨 떡볶이집, 또 다른 골목에는 또 다른 떡볶이
집. 온 동네 떡볶이집을 줄줄 꿰고 있을 정도로 여러군데 단골집이
있었어요. 그 중 가장 좋아했던 떡볶이집이 일산시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이 문을 닫고 없어졌어요. 그땐 너무 아쉬워서 그 집
떡볶이 레시피를 알아내고 싶을 정도였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 집 떡볶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예요.

이렇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많아요. 옛날에 택시 정류장
사거리 쪽에 롯데리아랑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산동
에서 학생들이 놀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면
롯데리아랑 오락실 가서 놀고 했었는데, 이젠 그 자리에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학창시절과 어린시절을
추억하려고 해도 추억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어른들이
다니셨던 방앗간이나 떡집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저희가
즐겼던 떡볶이집이나 오락실, 골목들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아예 사라져 추억조차 못하는 게 참 아쉬워요.

어린 시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건 큰
상실감을 줄 것 같다. 친구들과 어울려 별 것 아닌 일에도 깔깔대며 즐거워 한
추억들은 떡볶이 맛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추억의 한 자락을 잃어버리는 느낌일 것 같다.



220504_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일산역 구 역사_박혜인

박혜인: 또 다른 추억은 없으세요?

사장님: 옛날을 추억하면 완전 사라져서 추억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한편
(최유미)

으른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고등학생 때
부터 다녔던 일산시장의 밤비노 경양식 식당은 그 때 그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좋아요.

또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떡집이라던지, 참기름집과 같은 가게는
어머니 단골가게가 되고 우리의 단골가게가 되었어요. 그 가게들도,
저희도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 단골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토박이로서 그런 점이 좋아요.

박혜인: 일산역에서의 추억은 없으세요?

사장님: 어릴 때는 일산역이 지금 역사와 달랐어요. 지금은 일산역 구역사가
(최유미)

전시관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구역사에서
기차를 탔었어요. 옛 일산 역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 신촌역
으로 놀러 갈 때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 때는 열차도 많이 낡았고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배차 간격도
길어서 오래 기다렸어야 했지만, 친구들과 역사 안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놀았던 그 시간도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산역 근처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큰 언니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기 차로 본가에 오갈 때는 변화를 잘 느끼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일산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당황했나 봐요. 본가로 오는 길을 모르
겠다며 새로 생긴 일산역에서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고 전화했더

라고요. 어렸을 때 매일 같이 지나갔던 길과 건물이 다 없어져서
그랬는지 길이 헛갈렸나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했나봐요.

대화를 하며 우리가 일상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을 채우는 소소한 풍경들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부터 전혀 다른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이 계속 변해가는 중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일산동의 풍경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혜인: 계속 일산동에 거주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장님: 서울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최유미)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씩 서울에 나가면
건물들도 사람들도 뻥뻥해서 살기는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반면 일산동은 오래 살아서 익숙하고 친근하고요. 익숙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산이 살기는 좋잖아요. 장점이 많죠. 주변에 마트도 많고 시장
가깝고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요.
병원도 같은 곳을 오래 다니다 보니 마치 주치의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익숙함이 있어요. 교통도 의외로 좋고요. 일산역이 있어 서울
가기에 편하기도 하고, 버스 노선도 많고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니
살기 좋아요.



220503_일산시장 5번 출입구_박혜인

박혜인: 토박이로서 일산동에 바라는 점은 없나요?

사장님: 일산은 아침에 다들 일하러 나가서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는 베드타운
(최유미)

이라고 하잖아요. 낮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아쉽기는 하죠.
당장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문화적인 면에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하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이 낮에 운영되니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게 아주 아쉬워요.

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일산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말이나 저녁 강좌가 개설되면
좋겠어요.

또, 어린이 관련 시설도 부족한 편이고요. 주변 얘기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히려 파주 운정 쪽으로 이사한다고 해요. 일산동도, 고양시도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않고 머물 수 있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의 모습 없이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이 아쉽긴 하지만,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 마을에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게 마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딸이 휘낭시에를 좋아한다. 딸과 함께 맛을 기대하며 과자봉지를 열었다. 봉지 안에는 내가 주문하지 않았던 에그타르트가 함께 들어있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느라 사장님들 시간을 방해했는데 생각지 못한 선물까지 받았다. 기쁘면서 죄송스럽기도 했다. 과자는 상상 이상으로 맛이 있었다. 특히 에그타르트를 좋아하는 나에게 란언니의 에그타르트와 휘낭시에는 최고의 맛이였다.

란언니 디저트 오시는 길



마을을 담는 이들 '마을다미' 이야기 - 박혜인

2006년 6월 남편의 이직으로 부산에서 고양시로 오게 되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처음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길가에 자리한 잎이 무성한 가로수였다. 부산은 넓은 곳인 데다 난개발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차들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고가도로가 이리저리 얹혀있는 대도시. 그런데 이곳은 신도시 개발로 도로 하나까지 모두 반듯하게 지어진 도시인 것이 한눈에도 느껴졌다. 구획이 나누어진 아파트 단지들과 도롯가로 죽 늘어선 가로수들이 깨끗한 느낌을 주었다. 또 특이하게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는 논밭이 이어져 있어 시골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나 마트, 문화센터가 있어 아이를 키우며 살기 매우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2014년에는 행주문화제에서 시민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했었다. 덕양구청에서 어울림누리까지 약 2킬로의 거리를 꽃마차를 타고 깃발을 들고 걸었던 일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이와 함께 많은 추억을 쌓으며 고양시에서 18년째 살고 있다. 이곳은 아이가 태어난 고향이자 나에게도 또 다른 고향이 되었다.

나는 젊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녔다. 바다를 좋아해서 남해나 동해의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다녔다. 또 산이 좋아 지리산과 덕유산, 그 외에 많은 산을 올랐다.

당시에는 그곳의 풍경들을 눈과 마음에 담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다. 사진으로 남기고픈 마음이 들었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사진 찍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사진을 잘 찍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사진 강좌를 찾아 들었다. 사진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사진전도 하는 강좌였다. 가족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전시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다.

그 강좌에서 만난 좋은 분들과 사진제작단이라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진 제작단에서는 고양시의 여러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600년 역사를 가진 고양시의 현재 모습과 사라져가는 모습, 유·무형의 문화재들을 기록하고 전시했다. 시민들의 눈으로 보는 고양시를 기록하는 작업은 매우 보람된 일이었다.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에 재미를 느낄 때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산동을 기록하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진으로만 기록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글과 함께 기록해서 더 구체적으로 고양시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았다.

2022년에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일산동을 걸어 다니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낯선 동네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을 발견하고 반가웠다. 또 오일장이 서는 장터를 구경하며 엄마와 장날의 나들이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렇게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요즘 신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지나가는 전깃줄이 눈에 띄었다. 이런 모습이 일산동의 특별한 모습 같아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연말에 일산종합사회

복지관 1층 복도와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전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1년간 활동을 되돌아보고 보람을 느끼며 뜻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2023년 올해에는 일산동과 일산시장의 가게들을 기록으로 남겨 보자는 기획이 정해졌다. 그러나 아무 가게나 찾아가서 기록의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진제작단 활동을 할 때 시장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녀본 일이 있다. 그때 몇몇 상인들이 적대적으로 대하고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 이번 기획은 사실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떠오른 곳이 카페였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책을 들고 카페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 폭 빠져들어 읽을 수 있어 좋았다. 여행지에서도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여행의 즐거운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카페는 편안한 휴식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카페가 나만의 공간은 아니지만, 커피와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은 나만의 공간을 가진 것 같다.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증이 생겼다. 일산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이곳 일산동에서 카페를 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공간과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알아보고 싶어 ‘란언니 디저트’를 인터뷰하였다.

일산동을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나의 추억을 떠올려 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현재를 기록하는 일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어 행복했다.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 2

일산동의 시간이 담긴 "삼양슈퍼"

1960년대, 삼양슈퍼 문이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산다.

자녀들은 크게 자라고, 손주들도 이젠 어른이 되었다.

삼양슈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일산동을 지키며, 동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다.

삼양슈퍼는 우리 동네의 작은 역사다.

그 안에는 우리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길



230626_삼양슈퍼 전경 그림_배지영

시간을 담은 작은 슈퍼: 60년의 노부부 이야기

- ◆ 상 호: 삼양슈퍼
-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83
- ◆ 영 업 시 간: 매일 7시~23시
- ◆ 연 락 처: 031-975-2064
- ◆ 구 술 자: 이병진(1947년), 이영숙(1948년)
- ◆ 면 담 자: 마을다미 배지영
- ◆ 인터뷰 기간: 2023년 5월 21일 ~ 2023년 10월 24일

한국의 1960년대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해져 국민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노부부 추억이 담긴 삼양슈퍼의 특별한 이야기는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슈퍼를 시작했을 때는 일산시장과 더불어 주변 상권까지 활기가 넘쳤다. 삼양슈퍼도 지방에 거래처를 두며 크게 도매 거래를 할 정도로 번창했었다. 물건은 꺼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갔고, 방방곡곡에 상품을 보냈다. 슈퍼를 중심으로 4km 반경 이내 정도의 거리까지는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짐 자전거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배달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230526_이병진 사장님 인터뷰 중_배지영

칼바람이 매서운 추운 겨울에는 시장 곳곳의 도로가 살얼음 바닥이 되어 자전거가 자주 미끄러져 넘어졌다. 일을 하며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일도 흔했다. 피약별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에는 너무 더워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수건 안에 얼음을 가득 담아 목에 감고서 힘들게 배달을 했다. 그래도 그때는 젊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현재 가게 위치에 작은 3층짜리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 지난 60여 년 동안의 힘들었던 순간을 돌이켜보며 마디마디 굽어진 손가락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다. 울퉁불퉁 굽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지난날 힘들고 고단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한 보람도 많았다고 환히 웃었다.

처음 인터뷰 요청을 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했을 때였다. 가게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다. 사장 내외는 라면과 떡볶이를 요리하고 있었다. 가까이 살림집이 있지만, 보통 한 끼 정도는 가게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배달 음식은 비싸고 매일 사 먹을 수도 없어서 점심은 대부분 가게 안에서 간단히 조리해서 먹는다. 사장님 내외는 60여 년간 한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인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끼고 또 아껴서 지금 자리에 3층 건물을 올리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또 손주들 대학 입학금도 해주었다고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노부부의 손주들이 직장인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하러 올 때 그 뿌듯함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건강히 장성한 자녀와 손주들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훈장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배지영 : 처음 슈퍼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 기억을 들려주세요.

사장님 : 아버지께서 여기 일산 구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어. 문봉 상회라고. 내 고향이 문봉동이거든. 거기 택시 정류장 있지? 거기서 역전(일산역) 방향으로 가면 제일병원(현 고양축산농협 일산동지점) 옆 자리에서 어물 장사(잡화 판매)를 하셨어. 내가 18살 때부터 아버지 가게를 도왔는데, 거기서 경력을 쌓고 나서 스무 살 때 나 혼자 따로 지금 이 자리에 슈퍼를 열었어. 25살에 우리 집사람하고 중매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지. 그때는 지방에도 거래처를 두면서 도매도 크게 했었어. 장사가 잘되니까 슈퍼를 더 열심히 운영하면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옛날 우리 슈퍼는 요즘으로 치면 큰 편의점 같았거든. 사람들이



230526_이병진 사장님 웃는 모습_배지영



230526_가게 내부 중앙에서 찍은 사장님_배지영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다 놔줬어. 없는 게 없었지.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팔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휴일도 없이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았어. 그 당시에는 가게에 물건만 갖다 두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렸어. 그러다 90년대에 접어들니 세상이 바뀌더라고. 언제부터인가 큰 슈퍼가 생기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고. 또 시간이 지나니 방 안에서 클릭만 해서 물건을 사더라고. 그러니 이제 우리 슈퍼를 들릴 일이 거의 없지. 우리도 나이를 먹어서 지금은 거의 소일거리로 운영하고 있고.

배지영 : 그렇다면 시장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어떻게 슈퍼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계세요?

사장님 : 이 건물이 우리 꺼거든. 그러니 월세가 따로 안 나가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게 힘들기는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힘이 들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못 갖다 놓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팔고 있어. 많이 안 팔리니 마진이 좋진 않지. 내 가게가 아니면 아마도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거야.

배지영 : 예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사장님 : 우리 부부가 진짜 열심히 일했어. 가게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정말 우리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찾는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물건도 그때그때 사다 놓고, 꼬박꼬박 채워 넣고 그랬어. 매일매일 새벽 6시경 문을 열고 밤 11시가 넘어서 가게 문을 닫았지. 내 한평생을 슈퍼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열심히 일했어.

배지영 : 주변에 편의점, 마트가 생겼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사장님 : 주변에 편의점과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우리 슈퍼 상황이 많이 달라졌었지. 마트 가면 별별 물건을 다 팔잖아.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물건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우리 슈퍼에 오는 일이 줄었지. 손님은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항상 가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도 했지. 우리의 노력을 아는 단골손님들은 일부러 와서 물건을 사가 기도 하고, 그냥 들러서 우리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 동네 소식이 오가는 사랑방 같은 분위기였어. 이제는 그런 분위기도 거의 사라졌어. 이젠 단골 개념도 없어지고 슈퍼 앞을 지나가다가 간단한 생수나 음료수 정도 사러 들어오시는 손님들 외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매출이 많이 떨어졌지.



■ (좌)230521_알루미늄 캔 고리 묶음_배지영
(우)230521_쌓여있는 팔각 성냥갑_배지영

가게 안을 둘러보니 나무로 네모반듯하게 짠 매대 구석진 한편에 알루미늄 캔 고리가 비닐봉지에 가득 들어있었다.

배지영 : 캔 고리만 재활용품으로 수집하시는 건가요?

사장님 : 90년 즈음이었나. 캔 뚜껑을 모아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수레를 준다고 소문이 났었어. 그래서 손님들이 마시고 버리고 간 캔이 있으면 뚜껑을 다 뜯어서 열심히 모았지. 한가득 모아서 갖고 가니까 헛소문 이었다. 열심히 모았는데 버리기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뒀어.

가게 안에 옛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특히 내 눈길을 가장 끈 것은 팔각 성냥갑이었다. 어렸을 때 집이나 음식점에서 흔히 봤었기에 괜스레 더욱 반가웠다. 이제 국내에는 성냥공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대가 변하며 성냥의 대체품이 넘쳐 성냥 수요가 줄었기 때문일까. 삼양슈퍼에 쌓여있는 성냥도 가끔 무당집에서 찾는 것 말고는 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배지영 : 슈퍼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였을까요?

사장님 : 우리 자식들 1남 2녀 모두 다 대학교까지 보낸 거지. 우리 애들 모두 참 착하게 잘 컸어. 학생 때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짬짬이 시간 내서 가게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참 잘 컸어. 아빠, 엄마가 장사하느라 신경도 많이 못 썼었는데, 셋 다 모두 직장 잘 다니고, 결혼 준비도 알아서 하고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참 훌륭하게 잘 컸어.



원래 여기(지금의 삼양슈퍼 자리)가 논이었거든. 역전(일산역) 앞부터 해서 택시 정류장 그 근처 빼고는 이 주변이 거의 다 논이었어. 얼마나 논이 넓었냐면, 60년대 전에는 모내기하는 시기면 전라도 사람들 몇백 명이 일산역으로 기차 타고 올라와서 모내기 일을 도울 정도였어. 한 60년대 후반쯤 여기에 있던 논을 흙으로 메워서 칸칸이 분양을 했어. 슬레이트, 벽돌로 지은 집들이었지. 그걸 내가 분양받아서 슈퍼를 시작하게 된 거야.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슈퍼 뒤 편에 살림집을 차려서 그렇게 살다가, 1987년도에 그걸 다 허물고 지금 이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1987년은 절대 못 잊지. 우리 부부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지은 해였거든. 정말 그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 부모님이나 은행이나 그 누구의 도움 하나 없이 오롯이 우리 부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대출 없이, 내가 번 돈으로만 집을 지었어. 집을 짓는 몇 달 동안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느낄 만큼 정말 행복했었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

사장님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1987년은 정말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그때로 되돌아간 듯이 활짝 웃었다.

옛 추억을 떠올리던 중 사장님이 가게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주판을 가져왔다.
낡은 나무에 초록색 테이프가 휘감긴, 웬지 모르게 땡강 잘린 것 같은, 세월의
흐름조차 감지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주판이었다.

사장님 : 이 주판 나이가 몇 살 같아 보여?

배지영 : 어렸을 때 주산을 배웠었거든요. 제 나이로 어림짐작해 보면
한 40년은 됐을 것 같아요

사장님 : 이걸 1963년에 샀어. 이제 딱 60살 됐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야
(허허). 어느 날 일하는 중에 이게 떨어지더니 딱 쪼개졌어. 작게
쪼개졌지만 쓰기에는 멀쩡해 보였어. 쓸 수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
잖아. 어차피 10만 단위 이상은 거의 쓸 일이 없기도 하고. 부서졌
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 했어. 만 단위까지만 자주 쓰니까. 그래서
만 단위까지만 두고 이렇게 만들었어. 안 쓰는 부분은 이렇게 테이
프로 감아서 막아버리고. 쪼개졌으니까 나무가 날카롭잖아. 다치지
않게 테이프로 감싸놓은 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플라스틱으로 된 주판은 흔히 봤어도, 나무로 된 거는
처음 보지?

사람으로 치면 환갑의 주판. 이 주판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 어느 날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주판을 아래위로
정신없이 굴리고, 또 어떤 날은 천천히 계산하는 한가로운 때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주판은 사장님의 굵은 손마디와 함께 나이 든 평생의 동반자였을
것이다.



230526_슈퍼 벽면에 걸려있는 나무 주판_배지영



230526_나란히 나무로 짜여진 선반 _배지영

슈퍼 안의 내부 인테리어는 모두 나무로 짜인 선반들이다. 다른 가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나무 선반들이 상하, 좌우로 가게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선반들 역시 지나온 오랜 세월을 보여주듯 모퉁이와 바닥들이 반질반질 윤이 난다.

배지영 :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사장님 :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워. 주변 노인들을 보면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 매일 시간이 안 가서 힘들어하거든. 우리는 아직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게에 나오면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소외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아직도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과 얘기하면서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 이렇게 일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그게 목표야.



231024_1980년대부터 사용한 현관문 중 _배지영

“저희 부부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까지 이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손님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1024_1970년대 영수증 출력하며 사용한 금전등록기 _배지영

노부부의 끈기와 희망이 담긴 슈퍼는 작을지언정 큰 가치를 품고 있다. 60여년간 이 작은 슈퍼를 찾은 수많은 손님들과 쌓은 추억은 우리 일산동의 역사를 담고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의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희생하며 자녀들을 키웠다. 덕분에 현재의 우리들이 잘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삼양슈퍼 사장님 내외 두 분이 건강히, 오랫동안 이웃과 즐겁게 소통하며 지내시기를 바라며 60여 년을 한결같이 한 자리에서 지켜온, 아주 오래된 가게 문을 나섰다.

삼양슈퍼 오시는 길



마을을 담는 이들 '마을다미' 이야기 - 배지영

1990년대 초반, 그 시기는 우리 가족에게 빛나는 추억으로 남았다. 힘들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던 시절,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으로 이사를 했다.

지하철 주엽역에서 내려서 일산 호수공원 쪽 방향으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호수공원을 가는 길이 나온다. 주엽역에서 내려 호수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어릴 적 꿈꿔왔던 그림책 속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그 시기의 추억은 늘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직장과 가정을 오가는 일상에서도 그 길은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고, 함께한 가족들과의 시간은 지금까지도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다.

남편은 퇴근 후,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둘째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호수공원을 한 바퀴씩 산책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 잠투정을 한참 하던 시기라 아이를 집에서 잠 재우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공기, 그리고 마치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이름 모를 풀벌레들 소리로 달래며 잠을 재웠다. 그 시간은 나에게도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집안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나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남편에게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토이 예쁜 딸과 즐거운 데이트길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말이 별로 없었던 남편이지만 이때만큼은 한참을 이야기 해주곤 하였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드러웠고, 한여름 밤의 빛나는 별들은 반짝반짝 보석

같았다. 어둑어둑 늦가을 붉은 노을의 색상은 잊을 수가 없고, 코끝이 짹하게 찔찔했지만 겨울 날씨도 마치 영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다. 그 시절 남편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제 직장인이 된 딸을 보면서 남편은 가끔 딸과 그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한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소중한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일산이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여름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려와서 이사를 왔을 때 깜짝 놀랐다. 아파트들이 밀집되고 건물이 높은데도 공원 길에는 개구리가 밤낮으로 계속 개굴개굴 크게 울어서, 마치 시골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는 매일 아침과 늦은 밤, 걸을 때마다 귀가 떠나갈 정도의 목청 큰 개구리 합창이 무척 신기했었다. 30여 년이 넘게 흘러간 지금, 주엽동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개구리들은 모두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도시의 성장과 변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변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세월이 변화를 불러왔지만, 그 소중한 순간들은 우리 가족의 빛나는 기억으로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와 어제까지의 익숙한 일상 한 귀퉁이를 희미한 기억으로 사그라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 작은 가게, 눈에 익은 건물, 좁다란 골목길과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지나쳐 왔던 것들이 어느새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낯선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서운한 느낌을 준다. 마을 기록 활동가로서 활동하게 된 동기는,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 제

나름의 방법으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인연의 시작은 아파트 게시판에서 마을 기록 활동가 모집 안내지를 보게 된 것이었다. 오래 전부터 취미 삼아 해 오던 사진 촬영 경험을 살려 마을 기록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마을 주변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마을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은 물론 나의 기억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사진에 담긴 기억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내 기억 속 카메라는 언제나 즐거운 추억과 함께했다. 중학생 시절, 올림푸스 하프카메라를 처음 만났는데, 그것은 내게 소중한 보물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순간들은 지금까지도 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담고, 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도 늘 함께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흑백 필름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을 때마다 특별한 감정과 느낌이 가득했다.

세월이 흐르며 다른 분야에서도 나를 발전시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고양e사진제작단과 함께 고양시의 다양한 문화와 유산을 주제로 전시하며,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나에게 더 큰 의미와 책임감을 부여해 주었다.

사진만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다. 영상 제작과 집 안팎의 고양이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일산시장 안의 가게들에만 관심이었던 중 어느 날 시장 입구 근처에 위치한 큰 슈퍼인 오렌지 마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여러 차례 장을 보게 되었는데, 상품 다양성과 깔끔한 진열에 놀라움을 느꼈다. 특히 야채와 과일의 신선함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이를 통해 일산시장 주변에 대한 더 큰 관심이 생겼다.

오렌지마트를 떠나 시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도로변에 있는 삼양슈퍼라는 간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간판은 요즘에는 보기 드물게 느껴지는 과거의 스타일을 갖추고 있어 호기심과 신기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 간판을 따라 가게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의 모습으로 간 듯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어서 오세요.” 따뜻한 인사와 환하게 웃는 주인아저씨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가게 안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신기한 물건들도 발견했다.

주변에는 큰 마트와 편의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양슈퍼와 같은 작은 가게가 어떻게 지금까지 슈퍼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몇 번의 가게 방문을 통해 사장님과 삼양 슈퍼에 얹힌 이야기들을 대화하고 오래된 가게 내부를 사진 촬영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진이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의 사진이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다. 나의 작은 취미가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보람과 의미를 주고 있다.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 3

머리카락과 함께 세월이 깎이는 "월드 이발관"

남자들만 가는 이발소

나무의 나이테처럼 추억이 있고

이발사의 손 때가 묻어있는 소꿉친구 같은

정이 가는 곳이다

가위가 아닌 이발사의 재담으로

머리가 깎이고

신선으로 변하는 가위소리에

마음은 무지개를 타고

스르르 잠이 든다



230823_월드이발관 머리감는 풍경_손태원

복작복작 월드 이발관의 사랑방 이야기

- ◆ 상 호 : 월드 이발관
-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18 1층
- ◆ 영 업 시 간 : 월요일~일요일 7시~19시 (수요일 정기휴무)
- ◆ 연 락 처 : 031-913-2760
- ◆ 구 술 자 : 김동현(1954년)
- ◆ 면 담 자 : 마을다미 손태원
- ◆ 인터뷰 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3년 10월 22일

월드이발관에 사장님과의 만남 1차: 2023년 4월 1일 첫 방문
마을 기록을 위한 인터뷰 취지 말씀드리고, 인터뷰 수락 받았다.
이발소 내 사진 촬영하고, 추후 다시 뵙겠다 약속하고 왔다.

월드이발관 사장님과의 만남 2차: 2023년 7월 9일 오전 8시 방문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염색 손님 머리를 감기고 있었다.
잠시 후 또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오전 8시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새 단장을 위해서인지 월드이발관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이발관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손님 두 명의 머리 손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아침 손님들의 머리 손질이 끝난 후 잠깐 생긴 여유 시간에 인터뷰했다.



230709_김동현 사장님 인터뷰 모습_손태원

손태원 : 안녕하세요. 전에 방문하였던 손태원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사장님 : 예. 기억하지요.

손태원 : 사장님 성함과 가족관계 여쭙봐도 될까요?

사장님 : 이름은 김동현. 70대이고 미용실을 하고 있는 집사람과 함께 퇴계원에서 살고 있어요. 자녀는 1남 1녀인데, 지금은 다 출가시켰어요.

손태원 : 퇴계원에서 출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사장님 : 매일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해요. 출 · 퇴근 거리가 있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보람되어 좋아요.

손태원 : 여기서 이발관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사장님 : 지금 가게가 있는 이곳에서 17년 이발소를 운영했어요. 이전에는 퇴계원에서 했었는데, 거기서는 잘 안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도 싸고 오시는 손님들도 좋아서 계속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17년도 지나고 있네요.

손태원 : 하루에 대략 몇 분의 손님이 오시나요?

사장님 : 한 20~30분 정도 됩니다. 젊게는 50대부터 80대까지의 손님들이 오시고, 대부분 단골손님이셔서 그렇게 꾸준히들 오세요.

사장님 인터뷰 도중 젊어 보이는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한 후 인터뷰 했다.

230825_단골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사장님_손태원



손태원 : 어디서 오셨나요?

손님 1 : 김포에서 왔어요.

손태원 : 김포에서요? 택과 거리도 있을 텐데 이른 시각에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나요?

손님 1 : 여기 월드이발관 다닌 지가 벌써 5년 정도 되었네요. 원래는 여기 근방에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 김포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이발은 내 마음 편한 곳에서 하고 싶고, 여기처럼 마음 맞는 곳을 찾기 힘들기도 해서 조금 멀리 이사갔지만 그래도 계속 여기 와서 머리 하고 있어요.

손태원 : 사장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들게 이발을 해주시나요?

손님 1 : 단골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척척해주시니 더 믿고 오게 되죠. 그리고 머리를 하며 사장님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사이다 보니 형제같이 느껴져서 계속 오고 있어요.

손님 1의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사장님과 이야기를 이어갔다.

손태원 : 사장님은 언제까지 이곳에서 일하실 생각이신지요?

사장님 : 이곳과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저도 정이 너무 들어서, 내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계속하고 싶어요.



230825_차곡차곡 개어진 수건_손태원

손태원 : 혹시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실까요?

사장님 : 이곳에서 17년을 하다 보니, 많은 단골손님들이 기억에 남아 있죠.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오랫동안 저희 가게를 찾아 주신 손님들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꽤나 오랜 시간동안 제가 계속 머리를 만져 드렸는데, 그렇게 부고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허전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또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셔도 계속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월드이발관 사장님과의 만남 3차: 2023년 7월 31일 오후 5시 방문

여섯 명의 손님이 대기하고 있었다.

손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 사장님께 간단히 인사드린 후 빙 둘러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세 번째 방문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느낌이다.

손태원 : 이곳에 다니신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손님 2 :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손태원 :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계속 이곳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손님 2 : 여기를 꽤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장님께 머리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편하죠. 또 사장님이 입담이 좋아서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이발 비도 싸구요. 그리고 사장님이 좋으셔서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옛날 사랑방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정겨운 분위기가 좋아서 오기도 하죠.

사랑방 답게 손님 2와 인터뷰 도중 손님 3과 사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다.

손님 2 : 나는 여기 개업했을 때부터 다니고 있어요!

손태원 : 사장님, 개업은 언제 했어요?

사장님 : 여기는 2006년에 개업했어요. 집사람과 미용실을 같이 하다가 이발소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따로 하게 됐어요. 미용보다는 이용이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업종을 바꿨거든요. 둘 다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용과 이용이 머리 자르는 방식부터 해서 많이 달라요. 미용을 하다가 다시 이용을 배우고선 1994년부터 이용일을 했으니. 이제 30년 정도 됐네요. 제 나이가 70인데, 인생의 반은 이 일을 하고 있네요. 계속 퇴계원 쪽에서 하다가 2006년에

여기로 옮겨서 개업했어요. 올해로 이곳에 자리 잡은 지는 17년 됐네요.

손태원 : 그럼 손님께서는 60대부터 여기를 다니신 건가요?

손님 3 : 예. 지금 내 나이가 70대 후반이니 60대부터 다녔죠.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 꽤나 북적북적 해졌다. 사장님이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시간을 재 보았는데, 손님 한 명당 대략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혼자 이발, 염색, 머리 감기기를 다 하여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어느 손님 하나 불편한 내색 없이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이었다. 사장님을 인터뷰 하는 내 모습이 흥미로워 보였나 보다. 손님 2는 내게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 가라는 듯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서 건넸다. 참 정감 있는 곳이다.

손태원 : 쉬시는 날은 언제이고 쉬는 날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사장님 : 매주 수요일이 휴무날이에요. 보통 쉬는 날에는 등산을 갑니다. 아내와는 휴무날이 맞지 않아 혼자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흔 되신 어머니께서 응암동에 혼자 거주하고 계셔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퇴근하는 길에 어머니 댁에 들러 얼굴 뵈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7시가 되었는데도 손님들은 계속 기다리고 새로운 손님이 계속 들어왔다.



231012_손님의 머리를 이발하고 있는 모습_손태원

월드이발관 사장님과의 만남 4차: 2023년 8월 25일 14시 방문

사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마침 손님이 없어 간단히 인터뷰하였다.

손태원 : 일산동에서 자리 잡은 17년 전에는 이발비는 얼마였나요?

사장님 : 그 당시는 광고를 하다 보니 8천 원이었고, 지금은 7천 원이네요.

손태원 :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왜 이발비는 내렸을까요?

사장님 : 17년 전 처음 일산동에 왔을 때에는 주변에 이발소가 많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이발소가 하나 둘 생기더라고요. 가게가 많아지니 서로 경쟁하듯 가격을 내리다보니까 5천 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7천 원으로 받지만, 그 때 경쟁하던 이발소들은 얼마 안 돼서 폐업해 없어졌어요.

230825_머리 손질 후 머리를 감겨주는 모습_손태원



손태원 :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사장님 :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라...,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어요.

손태원 : 출퇴근하실 때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시나요?

사장님 : 일주일에 두 번은 승용차로 오고, 4일은 전철을 이용합니다.

손태원 :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장님 : 여기서 밥을 짓고, 집에서 가져온 반찬이랑 간단히 해결하고 있어요.

저녁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 점심과 저녁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대화 도중 손님이 들어왔다.

손태원 :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에 다니신지 오래되셨나요?

손님 4: 여기 단골이 된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문촌마을에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산책하듯 와서 염색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가요. 저희 동네에도 이발소가 있기는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여기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도 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머리를 해요.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알아서 이발을 잘 해주 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장님의 정적인 면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로 오게 되네요.

한 분은 머리 감고, 한 분은 이발, 염색을 하고 있다.

이발관 안이 아주 바빠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왔다.

손태원 :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곳에 방문하게 되셨나요?

손님 5 : 서울에서 덕이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지리를 잘 몰라요. 어디에 이발소가 있는지, 어디에 슈퍼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발소를 어디로 다녀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같은 동네 사는 아저씨가 여기 이발소를 소개해 줬어요. 사장님이 이발도 잘하고 매우 친절한 이발소라고. 그래서 왔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계속 다니고 있죠.

그 많던 손님들의 머리 손질이 차례대로 끝난 후, 잠깐의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사장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태원 : 이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염색, 머리 감기 등 혼자 다 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혼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장님 : 우선은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손에 익어서 그런가 힘들지 않기도 하고, 손님들이 다 오래된 단골이라 오래 걸려도 자기 순서를 기다려주시기도 하니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손태원 : 17년 전과 지금의 이발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장님 : 17년 전과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제가 쓰는 가위나 바리깡, 집기들, 임대료까지 모두 그대로네요. 아! 딱 한 가지 냉장고만 바뀌었네요.



231022_월드 이발관 사장님이 사용하는 도구_손태원

손태원 : 그렇다면 지금 일하시면서 사용하는 도구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도구가 있을까요?

사장님 : 특별히 애착이 가는 것을 딱 집기는 어려워요. 다 내 손때가 묻은 거라 하나도 빠짐없이 애착이 가죠. 가위 같은 것들은 거의 20~30년을 썼으니, 이제 제 손과 같아서 딱 하나를 꼽아서 가장 애착이 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다 제 몸 같고 다 애착이 가죠.

월드이발관 사장님과의 만남 5차: 10월 12일 오전 9시 방문

오랜만에 사장님께서 혼자 계셨다. 잠깐의 틈을 타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태원 : 사장님께서서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나요?

사장님 : 1954년에 7남매 중 장남으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었는데, 소작농이셨어요. 그 세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시절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더욱이 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해서 중동에 가서 일을 했어야 했어요. 먼 타국에 가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 부듯한 마음은 있어요.

손태원 : 어떤 계기로 이발소를 운영하게 되신 건가요?

사장님 : 집사람과 만났을 때부터 집사람은 미용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미용실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미용 자격증을 따게 됐죠. 그렇게 집사람과 몇 년 같이 일을 하다가, 저는 이용일이 더 잘맞는



230709_월드 이발관 내부 풍경_손태원

것 같아서 따로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독립해서 자리 잡은 곳이 여기예요.

손태원 : 사모님과 언제 결혼하셨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장님 : 사촌 형의 형수님께서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그곳에서 미용일을 하고 있는 아가씨가 참 참하다면서 사촌 형과 형수님이 소개해주셨죠. 만나보니 저와 9살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1983년에 결혼을 했어요. 애들은 2명을 낳았고요.

손태원 : 부부가 모두 손재주가 있어 좋으시겠어요. 자녀들도 그런 손재주를 물려받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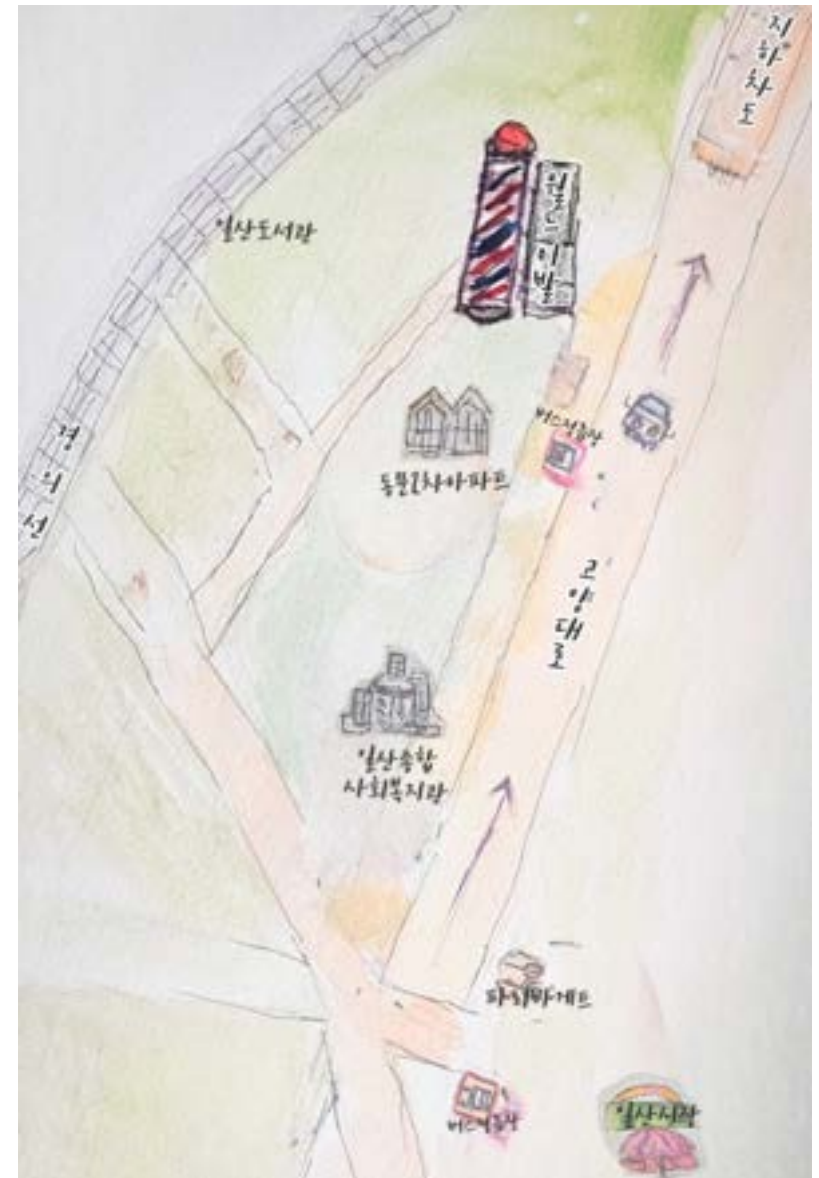
사장님 : 딸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물려 받은 것 같아요. 몸이 고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 잘 큰 거 보면 뿌듯합니다.

손태원 : 인터뷰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사장님 : 제 얘기를 어디서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었어요. 조금은 낯설기는 한데 제 이야기가 책에 실린다니 부끄러우면서도 좋습니다. 우리 자식들, 후손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서 좋네요.

월드이발관 오시는 길



마을을 담는 이들 '마을다미' 이야기 - 손태원

내 나이 어느새 70. 결혼한지 47주년이 되었다. 4남매를 둔 엄마로 힘은 들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노년을 맞고 있다.

나는 수원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수원에서 보냈다. 대학교 다닐 때에도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였다. 지금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좋지만 60년대에는 수원에서 서울을 가려면 정해진 시간에 오는 통학 완행 열차를 타야만 했다. 열차 안에서 라면땅을 먹어가면서 즐겁게 떠들며 추억을 쌓았고, 그 안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1994년,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특별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며 일산으로 이사 왔다. 평생 수원에서 살다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곳에 뚝 떨어져 살게 됐다. 막내아들 초등학교 학부모총회 갔다가 덜컥 학부모 회장으로 당선됐다. 학부모 회장으로서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다. 그 당시 일산은 새로 지어진 도시여서 학교도 건물만 덜렁 지어져 있었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커튼을 달았고, 선풍기도 설치했다. 그 당시 학부모 회장으로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많이 도와주어 5년 동안 학부모 회장 및 운영위원장까지 했다. 나에게서는 새로웠던 일산에 적응하는 나만의 노력이었다.

지금은 일산 곳곳에 대형마트 백화점들이 있지만, 1994년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태영마트와 이마트만 있었다. 지금은 고층 아파트와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는 그 자리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저녁이면 그곳에서 친한 부부들과 만나 기쁘고 슬픈 이야기 하면서 보냈다.

바쁘게 살면서 흘러보낸 30여 년간 일산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일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다니는 이 없이 한적했던 거리에는 자동차와 사람이 몇 배는 많아졌고, 허허벌판이었던 땅에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북적북적 해졌다.

세월이 지나며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 어느 순간 그런 곳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2022년, 우연한 기회에 화전동 덕은동 마을 아카이브에 참여하게 되었다.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 잊혀져 가는 마을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 속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산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마을을 이루는 가지각색의 지붕을 나의 눈에 먼저 담고, 미디어로 담아내었다. 덕은동 사람들에게 겸손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덕은동 마을사진전을 할 때 마을다미 이미션 씨가 들렀다. 작품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일산동 마을기록 작업을 하고 있다며 동참 제안을 해주었다. 그렇게, 제안에 수락하며 마을다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새로운 것과 사라지는 것. 그 과정에 나도 함께 있다. 이제 일산은 나에게서는 제2의 고향이 되었다.

일산동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 4

65살 된 옷 가게는 나의 모든 것 "복근상회"

일산시장에 가면 65살 된 할머니 옷 가게가 있다.
옷이 천정에서 벽까지 나란히 나란히 줄 서있다.
알록달록 지그재그 반짝반짝 각양각색 자태로 뽐낸다.

커다란 백구는 오늘도 사장님 곁을 지키며 쿨쿨
단골손님 오시면 말하지 않아도 사장님이 옷을 척척
무지개색 줄무늬 티셔츠와 꽃무늬 몸빼 바지 입어 봐.
얼굴이 시커먼데 저 색이 나한테 어울릴까?
그러니까 화사하게 어울려!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다니까. 하하하 호호호

옷 가게 사랑방엔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이야기 꽃이 활짝 피었다.



230529_복근상회 내 외부 풍경 그림_이미선

오래된 옷 가게,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 ◆ 상 호: 복근상회
-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12번길 10 (일산시장)
- ◆ 영 업 시 간: 매일 9시~18시30분 (매 월 14일 휴무)
- ◆ 연 락 처: 031-975-2248
- ◆ 구 술 자: 김복례(1939년), 정근선(1965년)
- ◆ 면 담 자: 마을다미 이미선
- ◆ 인터뷰 기간: 2022년 5월 29일 ~ 2023년 10월 23일



221025_상점 정면에서 찍은 김복례 사장님 모습_이미선

이미선 : 안녕하세요? 일산시장에서 오랫동안 한 곳에서 가게를 하신 사장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가게 안에서 사장님 모습을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장님 : 늙은이를 뭐더러 찍어?

이미선 : 사장님 미인이신데요.(하하) 옷 가게를 하셔서 그런지 옷도 예쁘게 입으셨어요. 옷을 좋아하세요?

사장님 : 예쁘긴 늙은이가 뭐가 예뻐. 젊어서는 최은희 닮았다는 소린 들었어. 옷은 좋아하지.

이미선 : 저도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화려하고 고운 색상 옷이 많아서 좋은데요. 옷이 엄청 많은데 수백 벌 되는 옷의 가격을 다 기억하세요?

사장님 :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맨날 하는 일인걸

이미선 : 장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장님 : 내가 1939년생인데 지금 86세니 65년이나 됐지. 23살부터 이 장사를 했어. 처음에는 남편하고 했지.

이미선 : 현재는 아드님하고 같이 하시나 봐요?

사장님 : 막내가 60대야. 처음엔 안 한다고 했다가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난리가 났지. 다들 설득했어. 월급쟁이보다 여기서 버는 게 낫지.

이미선 : 막내 아드님하고 같이 사신다고 했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사장님 : 그런 건 없어. 내가 매일 가게에 나가니까. 내가 사준 집에서 같이 사는 데 불편하면 나가야지.(하하하)

이미선 :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 : 딸 둘에 아들 하나야. 자식들이 다 일산에 살아서 자주 좋은데 데려가고 맛난 것도 사주지.

이미선 : 당면도 진열되어 있는데 파시는 거예요?
사장님 : 당면은 손녀 건데 대신 팔아 주는 거야.

이미선 : 손님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 오세요?
사장님 : 장날엔 많은 편인데 그때그때 달라.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안 와. 많이 죽기도 했고. 그래서 단골도 많이 줄었어.

이미선 : 장사하시다 보면 다양한 손님들이 오실 텐데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사장님 : 살 듯 말 듯 오래 붙잡고선 싸구려 옷을 바느질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오천 원짜리를 뭇 타박을 하는지 다른 데서 사라고 했어.

이미선 : 손님하고 싸우신 적도 있으세요?
사장님 : 손님하고 왜 싸워. 여태까지 싸운 적 없어. 난 평생 욕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려고 해. 손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뭐라고 해도 그냥 말을 안 해. 예전에는 아침 일찍 와서 옷을 교환해가도 내비웠어.



230910_옷 매무새를 정리하는 김복례 사장님의 손_이미선

가게 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가게를 열고 아침에 처음 오는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 가느냐에 따라 하루 장사가 다르거든. 장사하다보면 정말 신기하게 첫 손님이 교환해가면 하루 종일 교환해가고 그러거든. 그런데도 나는 아침에 그렇게 교환해가도 그냥 내비뒀어. 아들도 과묵하고 생전 뭐라고 안 해. 상인들끼리도 문제없었어.

이미선 : 여성으로 혼자 가게를 하시다 보면 힘드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든 건 없으셨어요?

사장님 : 그런 건 없었어.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남자들한테 무뚝뚝하게 대하거든. 예전에 어떤 이가 술 마시고 와서 우리 가게 평상에서 딱지치기(화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호통쳤어.

이미선 : 사장님이 열심히 장사만 하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셨네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실까요?

사장님 : 예전에 한번은 토시 천 원짜리 세 개 사면서 60대 젊은 애가 가격을 깎더라고. 그러고선 다시 와서는 택을 떼고선 안 맞는다고 교환할 수 있냐고 가져온 적이 있었어. 그래도 바꿔주고 그랬지. 그 옷을 버릴 거야. 어쩔 거야. 그래도 입어야지.

이미선 : 다른 데는 택을 떼면 교환 절대 안 해주는데 사장님은 친절하시네요. 상호는 누가 지으신 거예요?

사장님 : 아들 이름 뿌리 근하고, 내 이름 복 복자야. 여동생과 같이 지었어.

이미선 : 정말 잘 지으셨네요. 의미가 있는 상호예요. 가게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사장님 : 내 고향은 마포구 당인동인데 23살에 중매로 일산으로 시집을 왔어.

처음에 중매할 때 남편이 부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었어. 어렵게 살았어. 50년대에는 농사지을 땅이 많으면 부자였는데, 부모님께서 물려주지 않았어. 그렇게 시집와서 가게에서 장사 하면서 살았어. 시집왔을 당시에 시장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1층 집들로 되어 있었어. 처음엔 가게 안에 살림을 차렸는데, 80년대에 개발되면서 2층이 된 거야. 개발되고선 2층을 살림집으로 썼었지. 여기서 애들 키우면서 40년 넘게 살았어.

옛날엔 유아, 아동복을 같이 팔았었는데 아주 잘 됐었어. 지금은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 그래서 이제는 아동복을 접고 아들은 작업복을, 난 여성복을 파는 거야. 아들이 아줌마들 옷을 잘 알겠어? 상대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30살 때 남편이 일찍 죽었거든. 혼자 가게 하면서 3살, 5살, 7살 된 삼 남매를 키웠지.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썼는지 몰라. 평상시에도 잘 입혔지만, 소풍 갈 때는 특히나 더 신경써서 일부러 더 좋은 옷을 깔끔하게 입혔어. 등산 배낭 메고 다니니까 선생님들한테 눈에 띄는 애들이었어. 아이들 등록금도 때마다 바로 내고 그랬지. 선생님들도 오다가다 만나면 가게에서 밥 먹고 가기도 했었어. 예전엔 가게 앞에 사람다닐 통로만 두고 여유 공간에 채소도 같이 팔았었는데, 파는 채소 가져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이나 친한 아줌마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어.

이미선 : 손님들과도 밥을 차려 같이 나눠 드셨다니 사장님 인심이 후하시네요. 가게가 사랑방 같아요.

사장님 : 아침부터 나와서 장사하는 데 어떻게 나 혼자만 먹겠어. 탄현 사는 시동생은 농사를 지었어. 나보고 같이 짓자고 했는데, 밤에 캄캄한 게 너무 무섭고 모기도 많아서 싫었어. 나는 장사하는 게 나았어. 옛날엔 가게 안쪽이 부엌이어서 밥도 해 먹었는데, 손님들이 오다가다 들어와서 같이 먹었어. 그때는 열 명씩 들어와서 얘기하다 가고, 사랑방이었지. 그렇게 혼자되고서 열심히 애들 키우고 사니까 아줌마들이 우리 가게만 와서 팔아주고, 우리 가게에 물건 없어도 다른 데서 안 사고 따로 주문해 줬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떼오면 그 아줌마가 선금을 주고. 난 딱 받을 금액만 받고. 남은 돈을 돌려주면 안 받는다고 했는데도 줬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이 그 아줌마들 목욕탕에서 만나면 때도 밀어주고 우유도 사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해. 정말 고맙지.

이미선 : 그 당시에 정을 나눈 분들과 아직도 인연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시장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공간이 됐네요. 사장님처럼 오래 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요?

사장님 : 몇 곳밖에 안 남았을 거야. 맞은편 옷 가게도 부부가 하는데 80대야. 그래도 나보다 동생이고 내 또래는 없을 거야.

이미선 : 사장님이 시장에서 제일 오래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사장님 : 그렇지.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230610_북근상회 단골 손님 1_이미선

인터뷰 중 손님이 들어왔다. 자연스레 평상에 앉는다.

이미선 : 어떻게 친구가 되셨어요? 사장님이 어떠셨어요?

손님 1 : ‘와가리’ 같았지. 와글와글 목청이 크다고.

사장님 : 덜렁이지(하하).

손님 1 : 덜렁대진 않고 장사는 꼼꼼하게 잘하지. 사람 좋지.

이미선 : 단골이신데 사장님이 알아서 골라 주시나 봐요?

손님 1 : 처음에는 내가 골랐는데 이젠 오래 다니니까 알지. 사장이 좋잖아. 사람 좋아하고.

사장님 : 시장이니깐 깎아주고 교환도 해주고 그렇지. 다른 데는 잘 바뀌 주지도 않는다고 하대. 그래서 시장이 좋은 거야.

손님 1 : 맞아. 시장에서 사는 게 편해. 싸고 다른 데는 바꾸기도 어려워. 여기 다닌 지 몇십 년 됐지 아마?

이미선 : 연세가 있으셔도 꾸준히 일하시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십 년은 더 나오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 :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노닥거리고 수다 떨 사람이 없잖아. 나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나올 것 같아.

이미선 : 어르신들도 친구분들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게 건강에 좋죠.

사장님 : 20년 전에도 지금처럼 어디에서 나와서 찍고 책자도 주고 갔었는데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네.

이미선 : 그 책자가 궁금한데요. 나중의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할머니 책자에도 나왔다고 기억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 그걸 뭘 보겠어?

이미선 :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사셨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잖아요. 보고 싶을 때 꺼내볼 수 있고요.

이미선 : 가게에 애착 가거나 가장 오래된 물건이 있을까요?

사장님 : 아동복 팔 때 팔던 한복이 두 벌 남은 게 있어. 옛날엔 운동회 때나 행사 같은 거 할 때 입었는데 지금은 누가 입나, 안 입지.



230426_북근상회에 있는 물건 중 가장 오래된 색동 한복_이미선



이미선 : 한동안 안 보이셨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장님 : 말도 마. 대상포진 걸려서 20일 동안 집에 있는데 답답해서 혼났어.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잠깐 가게 나왔는데 얼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쓰러졌어. 아들이 잠깐 나갔을 때라 앞집 가게 아줌마가 일으켜서
방에 올려줬어.

이미선 : 어머니. 놀라셨겠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사장님 : 주사 15번 맞아야 하는데 이제 8번 맞았어.

이미선 : 사장님도 외상 주셨어요?

사장님 : 옛날엔 많이 줬지. 내가 장사한 지 한 50년 전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상값 못 받은 것만 해도 집 몇 채는 될 거야.

이미선 : 그렇게나 많아요?

사장님 : 예전에는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됐었어. 그만큼 외상 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돈 없고 어렵게 사니 못 갚았던 거지.
옛날에는 바글바글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시장에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에서 옷을 잘 안 사잖아. 젊은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사지. 만 원짜리 팔아봐야 얼마 남는 것도
없지만 그냥 저장 하는 거지.

이미선 : 옷이 잘 안 팔려도 오래 장사하셨네요?

사장님 : 내 가게니까 하는 거지. 놀면 뭐 하겠어.



230903_여성복이 각 맞춰진 열린 복근상회 내부_이미선

이미선 : 애착을 갖고 한곳에서 오래 장사하시는 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도 가게 옷 입으세요?

사장님 :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지금 입은 옷은 손녀 딸이 비싼 거 사준 거야. 옷 가게 하는데 뭐더러 비싼 옷 사 오냐고 하는데, 좋은 것도 입어 보라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선물 받으니 좋지. 딸도 사다 주고. 그럼 나도 밥 사주고. 그러면 딸은 왜 엄마가 밥 값 내냐고 하는데 네가 딸 사주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지.

이미선 : 따님과 손녀까지 잘 챙겨주셔서 좋으시겠어요. 물건은 언제 떼려 가세요?

사장님 : 한 달에 몇 번 가지. 대중은 없는데 아들이 떼 갖고 와. 그전엔 나도 갖고었는데 이젠 힘들어서 못 가.

이미선 : 제일 잘 나가는 품목이 있을까요?

사장님 : 비슷하게 나가. 남성복이나 여성복이나. 시기만 다를 뿐이야.

이미선 : 오랫동안 가게를 해오셨는데 얻은 게 있다면 뭘까요?

사장님 : 뭐 별다를 게 있나. 자식들 다 키우고 집 장만한 거지.

이미선 : 홀로 자녀분들 잘 키우신 것만으로도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여유가 생기셨으니 즐기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사장님 : 60대부터는 손님들하고 계 모임도 하고 여행도 가끔 다녔지. 계원이 45명인가 됐을 거야. 내가 허리 수술해서 입원했을 때도 문병 왔는데



221025_복근상회를 지키는 갑돌이_이미선

병실에 있는 분이 나보고 회사 사장님이냐고 그랬어. 그만큼 문병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지.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많이 못 걸어서 여행은 자주 못 가.

이미선 : 가게에 항상 큰 진돗개가 얹전히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사장님 : 갑돌이야. 먼저 하늘로 간 개는 진순이고. 가게에서 생활해서 그래.

인터뷰 중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손님인 듯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다.



230426_복근상회 단골 손님 2_이미선

이미선 :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손님 2 : 84살 먹었어. 심학산 알지? 버스 타고 심학산 쪽 파주 교하에서 왔어.

이미선 : 멀리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단골이 되셨어요?

손님 2 : 여기 가게 처음 열었을 때부터 왔으니까 한 50년쯤 된 것 같아. 우리집에서 금촌 시장이 더 가깝기는 한데, 여기가 옷이 더 이뻐서 금촌 시장 두고 여기로 와. 옷이 딱 우리네 스타일이야. 장도 여기서 보고.

이미선 : 단골 가게 있으시니까 좋으시죠?

손님 2 : 좋지. 옷도 골라주고, 돈 없으면 꿔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 오래됐으니까, 돈도 빌려주고 그랬어. 지금은 카드 주고 하지만 옛날엔 다 그랬어.

이미선 : 어머! 안 갚으시면 어떡해요?

손님 2 : 왜 안 갚아?

사장님 : (하하하) 옛날에는 다 외상이었지 뭐. 모르는 사람을 누가 줘. 아는 사람이니까 빌려주지. 아무나 빌려주나.

이미선 :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하세요?

사장님 :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돼야지.

이미선 :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사장님 : 우리 가게 뒤편 골목은 반찬가게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많고
환해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긴 점점 다니는 사람이 없어. 우리
가게 앞 골목은 물건을 사려고 들어 오기보다는 그냥 길을 지나가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비 오고 눈 오면 피하려고 들어와.
한 번은 입구 쪽 과일가게에다가 시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미선 : 천정 공사하고 많이 밝아졌다고 하던데요?

사장님 : 그래도 시장 안은 아침 10시여도 어두워. 하루 종일 불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 상인들은 부담되어서 못 켜.

이미선 : 예전에도 시장에 행사나 축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장님 : 옛날에는 노인잔치 열어서 국수 주고, 농악대도 불렀었는데 몇 번
하고 지금은 없어. 저번에 통로에서 뭐 하더구먼. (야시장)

이미선 :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장사가 잘 되나요?

사장님 : 시장에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되지. 젊은 사람들은 좋은 옷 사러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사지. 옷 가게가 많이 생겼잖아. 대신 우리
가게는 계절을 타 겨울에나 점퍼나 바지가 좀 더 나가긴 하지.

이미선 :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 : 가게 문은 9시 열어. 저녁 장사는 안 돼서 6시 반쯤 닫아.



230626_북근상회 외부 전경_이미선

이미선 : 아드님이 대물림하실 텐데 바람이나 당부가 있으실까요?

사장님 : 다 큰 자식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자기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하란다고 하고 말란다고 안 하겠어.

이미선 : 인터뷰하니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사장님 : 뭘 어때. 똑같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맨날 아파서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아프지. 우리 시절 때 다들 그랬겠지만,
난 못 배웠고 또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혼자 자식들 셋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 추운 지 더운 지도 모르고 장사를 했지.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어.



220529_가게 내부에 걸려있는 오래된 시계_이미선

사장님과의 인터뷰가 끝난 후, 잠깐의 시간 동안 아들 사장님과 인터뷰 했다.

이미선 : 시장이 개선됐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사장님 : 서울처럼 먹거리가 많아져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정근선)

이미선 : 어머니와 같이하시면서 좋은 점, 불편한 점이 있으실까요?

사장님 : 원래는 투잡하다가 어머니 뜻을 따르면서 같이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근선)
혼자 가게를 운영 하는 것보다 교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면서 특별히 뭐가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선 : 지금도 2층 사용하세요?

사장님 : 이제는 2층을 창고로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층이었었는데 1980년대
(정근선)
준공했는데, 그 당시에는 2층을 살림집으로 썼었어요.

이미선 : 가게에서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사장님 : 글썄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중 딱 하나를 꼽자면 옷
(정근선)
걸이와 옷 내리는 옷걸이 봉이요. 그래야 물건을 보여드리니까요.

230903_가게의 필수품 옷걸이 봉_이미선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하면 억세고 강할 거란 편견을 갖기 쉽다. 나도 인터뷰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다.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역경을 딛고, 열심히 살아 오신 사장님께 존경심이 생긴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꾸준히 가게를 여는 몸에 밴 부지런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항상 찾아보면 반갑게 맞아 주시고, 기꺼이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 주셨다. 사장님의 경험담이 가슴 찡했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인터뷰 후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인사드렸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경우가 있어,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 아마도 사장님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다. 이제는 여유가 있어도 연로하여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 현재를 즐기면서 건강히 살아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결국 시장 인심은 사장님이 인간을 대하는 존중과 배려였다.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런 보살핌은 받은 이들은 두고두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요즘은 금세 가게가 생겼다가 없어진다. 수십 년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정다운 가게의 단골이 되어 기쁘다. 언제 찾아가도 웃으며 맞아주시는 사장님처럼 인심 좋은 가게가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

복근상회 오시는 길



마을을 담는 이들 '마을다미' 이야기 - 이미선

2007년 만삭의 몸으로 일산에 이사를 왔다. 서울에서 살 때는 어디를 가도 집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했다. 반면 일산은 한산했고 깔끔한 느낌이 었다.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고봉산과 안곡 습지 공원이 맑은 공기와 푸르름을 선사했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가볍게 소풍 가듯 놀러 가서 도시락을 먹으며 즐겁게 지냈다. 아이들도 자연의 물소리, 새소리, 두꺼비 우는 소리를 듣고 곤충을 보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좋아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산시장은 집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세 정거장 거리에 있다. 3·8일 오일장이 열리면 시장은 사람들로 붐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처음 오일장에 갔을 때 시골장에서나 볼 수 있는 병아리, 토끼, 강아지가 있어 신기했다.

일산시장 골목을 따라 걸으면 각종 모종과 씨앗, 비료를 파는 종묘사를 흔히 볼 수 있다. 고양시 외각으로 가면 논과 밭이 있고, 화훼단지가 많아서 인 것 같다.

오일장 장날 포장마차에서 파는 즉석 떡갈비, 안주류, 국수와 같은 먹거리는 단연 인기다. 나도 종종 옛날 생과자와 파배기를 사 먹으며 시장을 구경하곤 한다. 시골 시장과 달리, 높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일산시장에서만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멋이 있다. 그래서 파주나 김포에서도 일산시장을 구경

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시장 인근 언덕에는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일산성당이 있다. 성당을 둘러싼 거목이 곳곳에 그늘을 만들어줘서 가끔 쉬어 가곤 한다. 성당 벤치에 앉아 한 숨 쉬어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성당 앞쪽으로는 구옥들이 모여 있는 벽화 마을이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골목의 벽화 앞에서 사진도 찍고 고무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골목 놀이도 했었다.

이렇듯 일산동은 역사가 깊은 곳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어서 과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한 곳에 정착하다 보니 같은 또래 자녀를 둔 엄마들과 거의 십 여년을 어울리고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이었을 때 부터 고등학교인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사를 자주해서 친구와 연락이 끊겼던 것과 달리, 내 아이는 친구들과 계속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엔 새로운 지역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일산이 좋아졌다.

2016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진 수업 수료 후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 고양시의

사라져가는 것들, 문화재, 장수 사진 봉사 등을 기록 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일산시장의 부여 국수 공장과 오일장에 나오시는 칼 가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어설픈 초보가 시장 상인을 인터뷰 할 수 있을지 부담이 앞섰다. 어릴 적 동네에서 봤던 친근함이 나를 이끌었고, 매주 방문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임했다. 나의 열정에 소중한 삶의 이야기로 답해주셨다. 코로나 이후 80대 고령의 칼 가는 어르신은 건강상의 이유로 시장에 나오시지 않는다. 부여 국수 공장 사장님도 언젠가는 아들에게 대물림하면 될 수 없게 된다. 누군가 기록해 주지 않는다면 그 시대에 살았던 장인들의 흔적은 남지 않게 된다.

기록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2021년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마을 기록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이빙에 관한 체계적인 수업과 고양시의 역사와 사진 촬영에 대해서 배웠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을 알아가고 기록하는 건 큰 가치가 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태도가 따뜻한 마을을 만든다.

복근 상회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일산시장을 둘러보다가 큰 옷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밖에서 볼 때는 남성복만 있는 줄 알았다. 안에 들어가 보니 알록달록 꽃무늬, 줄무늬에 화려한 반짝이 여성복이 줄지어 있었다. 평소에 옷을 좋아해서 관심이 생겼다. 사장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렸더니 ‘다 늙은 노인네를 뭐더러 찍어?’ 하시면서 흔쾌히 허락하셨다. 지금은 해탈하신 듯 허허 웃으시면서 지나온 일들을 담담히 꺼내주셨다.

사장님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의 축적된 인생살이에서 교훈과 용기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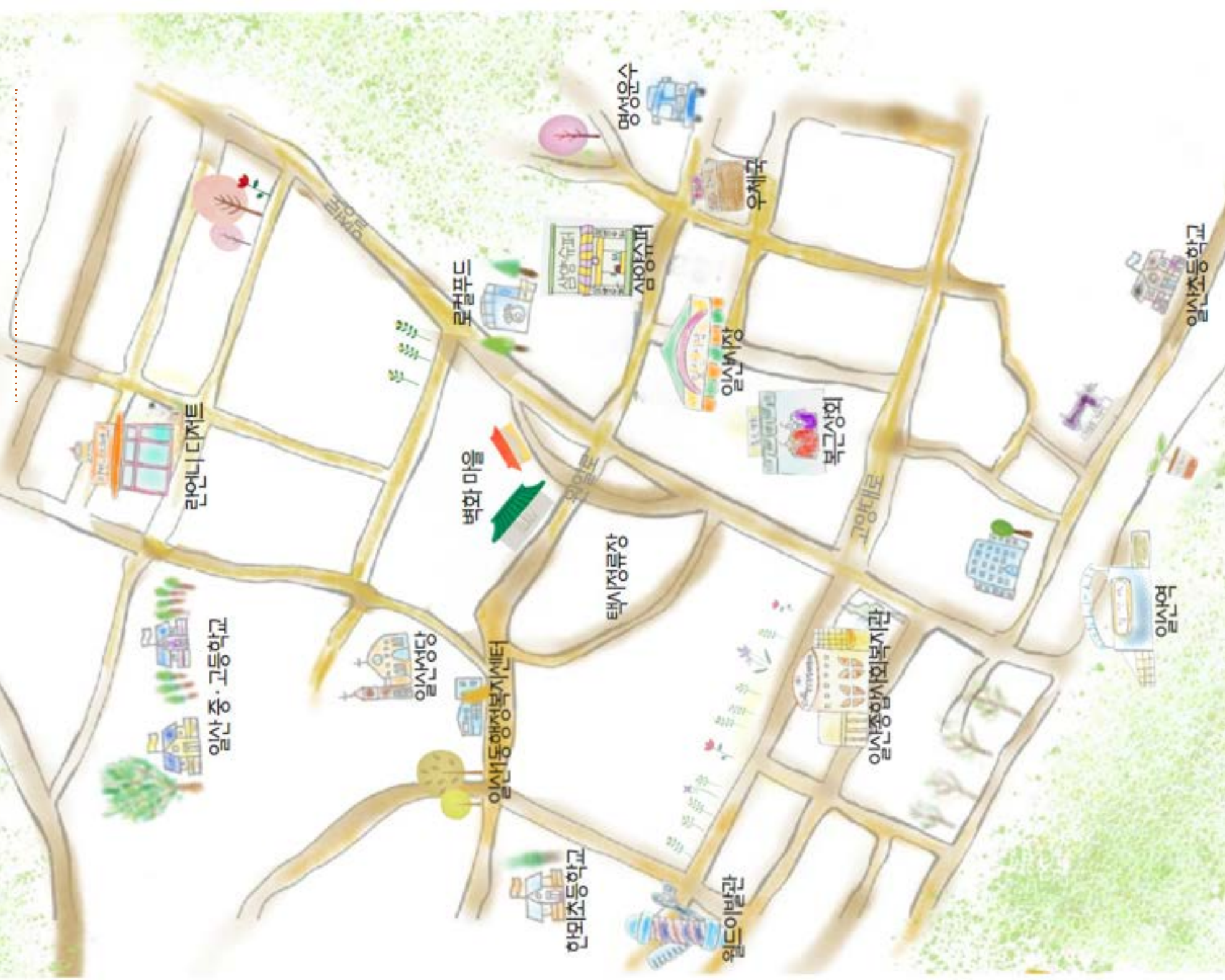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마을다미 기록에서 내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



2부

점점 열리는 일산동

우리마을을 상상할 때 상상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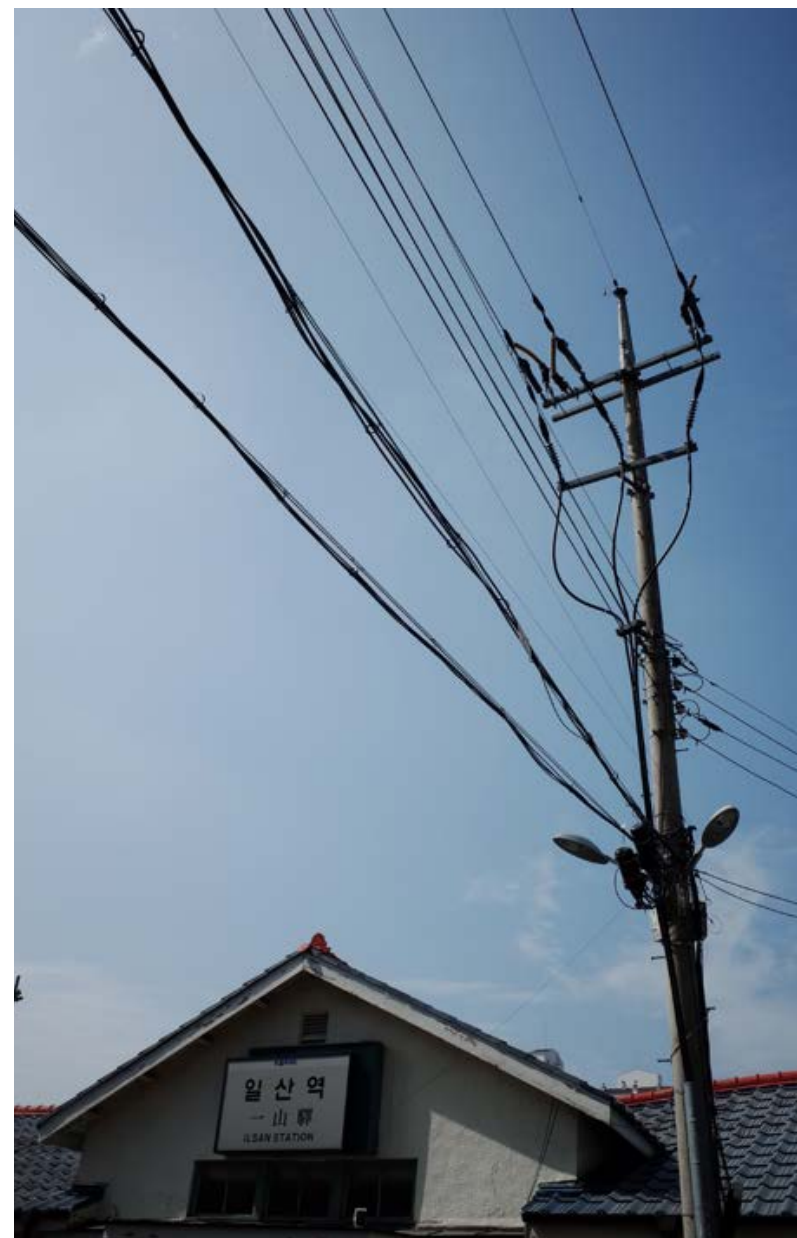
열어지는 일산동 - 일산동의 전봇대



220718_담쟁이 폐가 앞 전봇대_박혜인



220627_일산동 벽화 마을을 잇는 전봇대_박혜인



220718_일산역 구역사 앞 전봇대_박혜인

열어지는 일산동 - 일산동의 전봇대



220627_일산동 원일로를 잇는 전봇대_박혜인



220627_벽화마을 초입 전봇대_박혜인

열어지는 일산동 - 일산농협 소금창고



220810_농협창고 앞 널부러진 지붕공사 자재_배지영



220824_지붕공사를 앞둔 농협창고_배지영



220810_농협창고 안에서 찍은 지붕_배지영

열어지는 일산동 - 경의선 일산역



131213_첫 눈이 내린 일산역_배지영



180628_노을을 등지고 달리는 경의선_배지영



180917_일산역 구역사의 밤_배지영

열어지는 일산동 - 사라져가는 삶의 도구



181008_목공소 도구_이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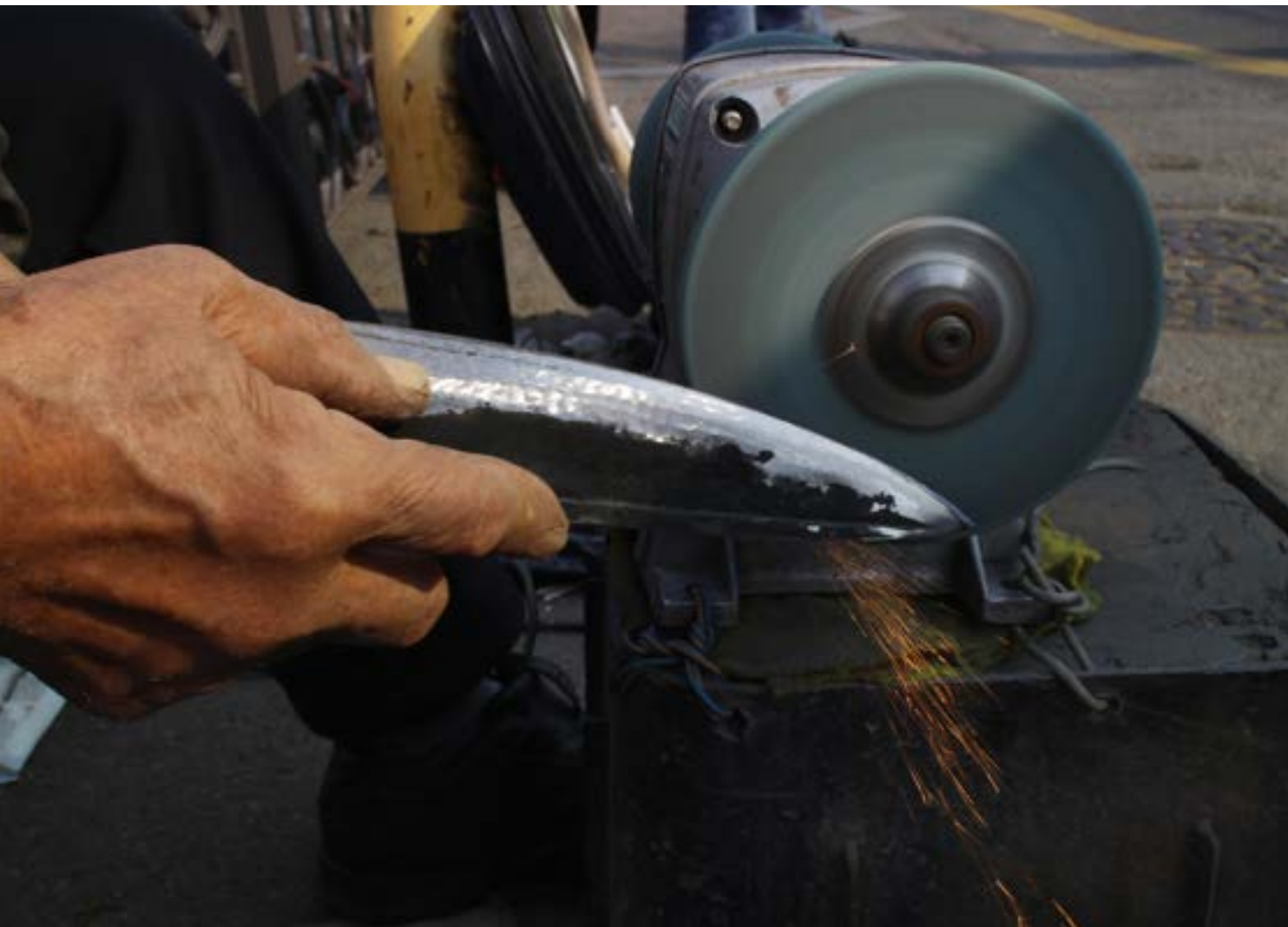


170613_도장을 파내는 연륜이 느껴지는 손_이미션



170613_가지런히 놓인 도장들_이미션

열어지는 일산동 - 사라져가는 삶의 도구
.....



170318_장인의 칼갈기_이미션



170318_세월이 묻어나는 칼 가는 숫돌_이미션

열어지는 일산동 - 과거와 현재의 중첩



221108_일산동 골목의 서울여관_이수민



220609_도심 속 새싹_이수민



211115_한국의 건축 현대사를 담고 있는 일산동_이수민

열어지는 일산동 - 일산동은 새단장 중



201130_일산역에서 바라본 일산시장_이수민



180926_일산역에서 바라본 일산시장_이수민



220313_새단장 중인 일산시장 지붕_이수민

나가는 말

마을다미 그 아름다운 이름

일산에 머문 지 어언 6년째다. 두벽이다 보니 지하철 노선 위주로 다녀서 아직 가 본 곳보다 가 보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일산에 살지 않은 이들을 만나면 일산으로 이사 오라고 말하곤 한다. 일산은 도시 같으나 시골 같다. 도시의 발전과 시골의 정겨움이 공존하는 곳이다. 사람들도 차가운 도시 남녀 같은 인상들이지만 한 번 두 번 만나면 그렇게 속정이 따뜻할 수가 없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양면이 가능한 곳, 그곳이 일산이다. 그중에서 고층 아파트와 고층 빌딩,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재래시장인 일산 시장, 심지어 오일장까지 그 모든 걸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일산동이다.

올봄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다미분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 모인 분들의 세대가 다양했다. 이십 대 젊은 분은 왜 마을이 궁금했을까? 아들딸 다 키워 놓고, 가장 바쁘게 사시는 칠십 대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었다. 나는 마을다미 분들이 궁금했다. 아무 이익 없이 개인 시간을 내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기록하고, 추억들을 소중히 여기고, 손때 묻은 삶의 현장을 섬세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분들이다. 심지어 인터뷰하는 용기는 어떻게 내신 걸까? 마을다미분들의 마음을 느껴보고자 일산 시장을 서성이며 이분들이 인터뷰하기로 한 가게도 찾아보고 과연 나는 말을 걸고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내겐 그런 용기는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일 년 가까이 함께한 마을다미분들의 글과 인터뷰와 사진이 한 줄

한 줄 너무나 소중하다. 이분들에 의한, 이분들이 만드는 책을 손에 쥐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다. 나는 누구이고, 일산은 내게 어떤 의미이고, 또한 마을다미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펼쳐 놓아야 할지 몰라 수많은 기억 속에 서성인다.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써야 할까 싶은 마음에 많이 쳐낸 어떤 글은 너무 간단하고, 좋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거 같은데 아껴둔 듯한 글도 있었다. 잘 못 쓰신 게 아니라,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어서 여러 번 수정하고 다시 쓰는 시간을 보냈다. 많이 힘드셨을 거다. 왜 자기소개만 하라고 하지? 라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목소리가 마치 귀에 들리는 듯하다.

개인 시간을 내어 사라지는 것들과 일산 현장의 삶 속 장면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기록해보려는 그 마음이 참 고맙고, 아름다워서 나는 욕심이 났다. 나는 감히 가져보지도 못했던 마음이라 고백하건대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와 인터뷰, 그리고 마을 지도 정도로만 계획했다가 시도 써보세요. 라고 부탁드리니 똑딱 쓰시는 모습에 반하고, 가게 그림도 그려보세요. 라는 부탁에 예쁜 그림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가게 찾아오기 쉽게 가게 약도도 그려볼까요? 어떤 무리한 요구도 안 된다거나 못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모두 마법사 같았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이분들이 가게를 여러 번 방문하며 해 오신 인터뷰는 너무나 훌륭했다.

일산동에 살지 않으셔서 자주 안 가 보셨는데도 란언니 디저트 가게를 인터뷰 해주신 박혜인 선생님과 가게 그림을 그려주신 따님의 노력에 감탄한다. 낮은 곳을 인터뷰하는 것이 보통 용기가 아닌 듯하다.

손태원 선생님은 가장 큰 언니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발소 인터뷰를 하시기 위해 미용실도 아닌 이발소에 여자분이 여러 차례 방문하신 이야기는 말만 들어도 울컥한 데 심지어, 시도 쓰시고 기억에 남는 샴푸 하는 장면을 수채화로 그려주셔서 마을 기록이 정성으로 만들었음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미선님은 늘 차분하게 글을 쓰고 말으신 옷가게를 개성 넘치는 손 그림으로 그려주셔서 사랑스러웠다. 만화 같기도 하고 낙서 같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표현해 주셔서 좋았다.

배지영님은 인터뷰 글에 삼양슈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가 느껴졌다. 주판 이야기도 그렇고, 모아놓은 캔 쪽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마음이 와 닿았다.

이십 대인 이수민님은 준비하신 상가가 종묘 가게였는데, MZ세대가 왜 종묘 가게에 관심을 갖는 걸까 궁금하고 반짝이며 이야기하는 눈빛이 기억나서 마음으로 응원했었다. 여러 상황 상 인터뷰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종묘 가게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도 의미 있다.

마을다미님 각각의 개성이 드러나는 인터뷰와 그림들, 가게를 표현한 글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들이 참 소중한데 가능한 일률적으로 틀을 잡지 않고 가 보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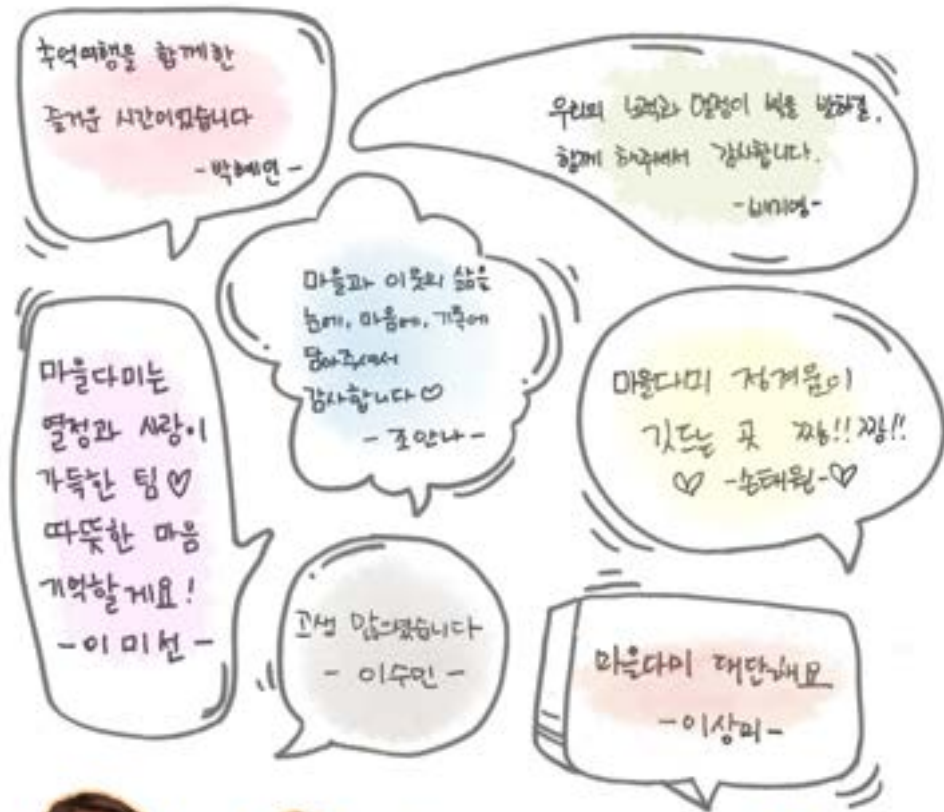
조안나 복지사님이 마을다미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마을다미를 이끌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많이 만들고 싶으셔서 디자인까지 직접 맡아서 진행하셨다. 복지사님의 열정이 일산동을 더 가치 있게 만드시는 듯하다.

이 귀한 기록은 많은 분이 보고 오래도록 기억되리라 믿는다.

마을다미는 이제 일산동의 무형재산이 된 듯하다. 쓰신 글들이 그 어떤 인터뷰어보다 감동적이고, 그 어떤 이야기보다 살갑다. 무엇보다 마을다미분들이 일산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마을다미 멋지고 부럽고 아름다운 그들이다.

동화작가 이상미



우리는 마을의 열어지는 일상을 기록합니다

